[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류진이 2122-9210 jinlee@hi-ib.com

2021/10/26

원/달러 급락, 제자리 찾기: 중국 리스크 완화 시그널

그림1. 중국 위안/달러 및 CDS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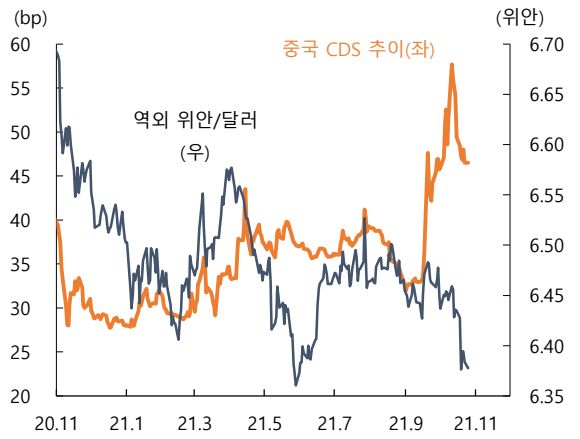

그림2. 원/위안 환율 추이: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원/위안 환율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원/달러 환율 8.7원 급락

✓ 원/달러 환율이 8.7원 급락하며 지난 9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1,160원대로 하락함

✓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과 더불어 11월 초 FOMC회의 경계감 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배경에는 위안/달러 환율 하락 등 중국 리스크 완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역외 위안/달러 환율의 경우 25일 장중 6.381위안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5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중국 CDS 역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등 헝다 그룹발 유동성 리스크가 지난주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계기로 크게 완화되는 분위기임

✓ 특히, 25일 장중 헝다 그룹이 광둥성 선전을 포함한 6개 도시에서 10여 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재개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전기차 중심으로 그룹 사업을 재편하겠다는 발표 등은 헝다 주가 반등은 물론 헝다 리스크 완화로 이어짐

✓ 물론 헝다 사태를 아직 낙관하기 어렵지만 달러 채권 이자 지급에 이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재개 등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 지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헝다 유동성 리스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오는 29일 도래하는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할지가 주목됨

■ 11월초 정치 이벤트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챙기기 본격화될지 주목

✓ 당사가 10월 25일자 보고서(中 리스크인데 원/위안 환율이 급등)에서 언급했듯 원/위안 환율의 이례적인 급등을 원/달러 환율의 오버슈팅, 즉 원화 가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급락을 제자리 찾기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또한, 그동안 각종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로 국내 금융시장 트리플 약세 가시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져왔음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의 안정은 중국 등 대외발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 11월초 FOMC회의에서 발표될 테이퍼링 계획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내 금융시장 역시 트리플 약세에서 벗어나 안정세가 뚜렷해질 공산이 높음
- ✓ 중국 리스크 완화와 관련하여 재차 강조하지만 11월초 8중 전회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챙기기가 본격화될지를 주목해야 할 것임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